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최은희*, 조택희**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대학교**

Eun-Hee Choi(ehchoi@cri.re.kr)*, Taek-Hee Cho(choth@chungbuk.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북의 청소년 중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한 544명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우울과 자살생각의 수준이 더 낮았고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수준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남녀 모두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교한 개입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예방프로그램 실시, 위센터, 위클래스 및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중심어 : | 부모양육태도 | 우울 | 자살생각 | 학교생활적응 | 청소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544 adolescents who live in Chungbuk filled ou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8.0 vers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 and main variables. Female showed high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an male. Higher performance group perceived parental attitude more positively, showed lower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d higher level of school adjustment than lower performance group. In additio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was a predictor of adolescent' mental health. School adjustment proved to have the mediating effect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verall. The specific interven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professionals and prevention program with parents, and the activation of school welfare.

■ keyword : | Perceived Parental Attitude |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 School Adjustment | Adolescent |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동반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취약한 발달단계이다. 청소년들은 많은 갈등과 긴장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환경적, 상황적 조건들에 의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

접수일자 : 2015년 08월 25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10일
교신저자 : 조택희, e-mail : choth@chungbuk.ac.kr

를 겪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 발달이 저해될 경우 성인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겪는 문제는 개인·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 9,402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지표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고,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 본 경우도 20.9%이었으며 실제 3.1%의 청소년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4 청소년정신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도 중1-고3(72,060명)의 우울경험률은 전국 평균 26.7%(남학생 22.2%, 여학생 31.6%)로 '201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소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 사회조사'는 13-19세 인구 중 자살충동을 경험한 8.0%를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을 학교성적(진학) 39.3%, 경제적 이유 19.5%, 가정불화 10.5%, 친구불화 및 따돌림 7.8% 등으로 제시하였다. 즉,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 학교, 친구로 크게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가정환경, 특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발달의 근간이 되며, 청소년들이 부모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가정환경 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배타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면화된 증상을 보일 수 있다[1].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고 [2][3],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아진다[4-6]고 보았다. 부모의 거부와 무관심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높고 [7],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비성취적, 폐쇄적, 거부적, 타율적인 양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하였다[8]. 강승희(2010)[9]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아지

고, Kullik과 Petermann(2013)[10]은 애착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임정희(2015)[6]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살생각에 부정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행동양식, 부모자녀관계 등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다른 사람을 잘 따르고 신뢰하면서 사회적응능력(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발달[11]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경험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토대가 되므로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12],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13]. 부모의 양육태도는 친구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거나, 학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가 가정 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학교생활적응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적응뿐 아니라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학교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친구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친구관계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자살시도를 하기 전 친구와의 결별을 경험하였거나 지지적인 우정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록, 학교규칙의 준수에 대한 저항감 및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부적응 및 내면화된 문제를 유발한다[3][16]고 본다. 학업성적과 친구관계는 우울, 자살생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비우울성향

의 학생보다 학교적응능력 및 학업성적이 더 낮게 나타났다[17]. 또한 학교규칙, 교사와의 관계적응 수준이 낮을수록[5],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하는 정도는 더 높았으며[18], 학교수업, 교우관계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9].

이상의 연구에서처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각각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은 매개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우울과의 관계[3][20]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과의 관계[5]를 분리하여 연구하였을 뿐, 동일변수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들은 우울을 자살생각의 전조증상 또는 선행사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울과 자살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동시성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에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우울과 자살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통하여 우울과 자살생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므로 세 변수의 경로를 이해하며, 우울과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개입지점 즉, 학교생활적응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우울, 자살생각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4)’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4)’는 2014년 9월 한 달 동안 충북 지역의 중 1~고 3까지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549부가 표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5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자 51.8%, 여자 48.2%로 중학교 35.3%, 고등학교 64.7%이며 이들의 성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4%가 가장 높았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45.8%, 청주시 외는 54.2%, 종교가 없는 비율은 61.2%이고 대부분 경제적 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19.1%, 22.3%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	구분	빈도	%	요인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82	51.8	지역	청주시	249	45.8
	여자	262	48.2		청주시외	295	54.2
학교 급별	중	192	35.3	종교	있음	211	38.8
	고	352	64.7		없음	333	61.2
성적	못함 이하	152	27.9	경제 수준	못산다 이하	63	11.6
	중간	258	47.4		보통	398	73.2
	잘함 이상	134	24.6		잘산다 이상	83	15.2
부 학력	고졸이하	237	43.6	모 학력	고졸이하	266	48.8
	대졸이상	203	37.3		대졸이상	157	28.9
	잘모름	104	19.1		잘모름	121	22.3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우울과 자살생각

우울은 201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으로 2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의 하위요인은 죄책감, 부정적 자기상, 부정적 인지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0점부터 3점까지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0$ 이다.

자살생각의 원출처는 Reynolds(1988)가 개발한 척도로 박병금(2006)이 수정·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전혀 없다' 1점부터 '거의 매일' 7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8$ 이다.

2) 독립변수 :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용한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서, 학업 및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신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5$ 이다.

3) 매개변수 :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2010년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용한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구성되며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3$ 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평균대체법으로 결측치를 처리하고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 우울 및 자살생각,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III. 분석결과

1. 변수의 타당도 검증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요인모형을 추정하고 직각회전 방식 중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회전을 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Kaiser기준을 적용하였다.

1) 우울과 자살생각 요인분석

우울의 KMO값은 .944, Barlett의 근사 카이제곱은 3418.92, 자유도 210, 유의확률 $p = .000$ 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KMO값은 .942 Barlett의 근사 카이제곱은 6273.83, 자유도 91, 유의확률 $p = .000$ 으로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우울과 자살생각의 KMO측도와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우울과 자살생각의 KMO측도와 Barlett's 검정결과

구분	우울	자살생각
	값	값
KMO 측도	.944	.942
Barlett 검정	근사 카이제곱	3418.92
	자유도	210
	p	.000

우울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은 .461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요인1이 전체 변량의 분산량 24.20%, 요인2가

16.15%, 요인3이 5.97%를 설명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울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우울5	.720	.119	.113	
우울4	.690	.225	-.089	
우울9	.674	.161	.121	
우울2	.642	.088	.192	
우울6	.642	.231	-.042	
우울8	.634	.171	.138	
우울1	.621	.258	.103	
우울3	.612	.300	-.110	
우울17	.591	.357	-.033	
우울15	.518	.382	.090	
우울10	.469	.307	.309	
우울13	.179	.690	.041	
우울11	.306	.635	-.152	
우울12	.344	.551	.034	
우울20	.014	.548	.114	
우울19	.443	.532	.011	
우울7	.475	.520	-.006	
우울21	.259	.463	.239	
우울18	.242	.461	.210	
우울16	.024	.009	.800	
우울14	.122	.472	.504	
회전 제공합 적재값	합계	5.081	3.392	1.254
	%분산	24.193	16.152	5.972
	%누적	24.193	40.345	46.317

자살생각은 요인부하량이 .643이상으로 전체 변량의 분산량 62.15%를 설명하였다.

표 4. 자살생각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자살생각1	.870		
자살생각7	.862		
자살생각2	.852		
자살생각11	.848		
자살생각10	.848		
자살생각6	.847		
자살생각5	.810		
자살생각13	.768		
자살생각14	.758		
자살생각3	.749		
자살생각9	.724		
자살생각4	.712		
자살생각12	.704		
자살생각8	.643		
회전 제공합 적재값	합계	8.701	
	%분산	62.149	
	%누적	62.149	

2) 부모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 요인분석

부모양육태도의 KMO값은 .940, Barlett의 근사 카이 제곱은 6611.17, 자유도 91, 유의확률 p=.000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KMO값 .840, Barlett의 근사 카이제곱은 2899.92, 자유도 66, 유의확률 p=.000으로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KMO측도와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KMO측도와 Barlett's 검정결과

구분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값	값
KMO 측도	.940	.840
Barlett 검정	근사 이제곱	6611.17
	자유도	91
	p	.000

부모양육태도는 요인부하량이 .628이상으로 요인1이 전체 변량의 분산량 32.51%, 요인2가 23.78%, 요인3이 21.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양육태도 요인분석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부모양육태도2	.845	.301	.202
부모양육태도3	.828	.179	.331
부모양육태도5	.806	.353	.215
부모양육태도1	.804	.261	.250
부모양육태도6	.771	.410	.231
부모양육태도4	.732	.488	.215
부모양육태도9	.216	.847	.140
부모양육태도8	.363	.811	.219
부모양육태도10	.370	.758	.258
부모양육태도7	.387	.717	.277
부모양육태도13	.202	.153	.885
부모양육태도12	.196	.187	.861
부모양육태도11	.184	.211	.760
부모양육태도14	.382	.203	.628
회전 제공합 적재값	합계	4.551	3.329
	%분산	32.507	23.780
	%누적	32.507	56.287

학교생활적응의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은 .603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1은 전체변량의 분산량 24.89%, 요인2는 20.97%, 요인3은 45.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교생활적응 요인분석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학교생활적응1	.751	.173	.031	
학교생활적응3	.716	.327	.054	
학교생활적응2	.698	.301	.030	
학교생활적응4	.664	.084	.257	
학교생활적응6	.625	-.034	.254	
학교생활적응5	.603	.175	.241	
학교생활적응8	.144	.886	.178	
학교생활적응9	.193	.882	.104	
학교생활적응7	.288	.783	.169	
학교생활적응11	.195	.160	.855	
학교생활적응12	.151	.057	.832	
학교생활적응10	.163	.217	.801	
회전	합계	2.987	2.516	2.331
제곱합	%분산	24.888	20.971	19.422
	%누적	24.888	45.859	65.280

2.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비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우울($t=-3.62, p<.001$), 자살생각($t=-2.80,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표 8.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비교

구분	M(SD)/Scheffe				
	부모 양육태도	우울	자살 생각	학교생활 적응	
성별	남	3.17(.58)	.37(.36)	1.38(.66)	2.98(.48)
	여	3.21(.49)	.50(.33)	1.56(.85)	2.94(.38)
	<i>t</i>	-.79	-3.62***	-2.80**	1.15
학급단위	중	3.20(.58)	.40(.37)	1.46(.75)	2.99(.46)
	고	3.18(.51)	.44(.34)	1.47(.77)	2.95(.42)
	<i>t</i>	.49	-1.11	-.15	.97
정적	못함 이하	3.06(.59)a	.54(.43)b	1.60(.90)	2.82(.44)a
	중간	3.17(.51)a	.40(.31)a	1.45(.74)ab	2.94(.40)b
	잘함 이상	3.37(.50)b	.33(.28)a	1.34(.60)a	3.16(.43)c
	<i>F</i>	13.17***	14.92***	4.17*	24.37***
종교	없음	3.19(.55)	.40(.35)	1.41(.74)	2.98(.43)
	있음	3.18(.52)	.46(.35)	1.55(.78)	2.94(.44)
	<i>t</i>	.17	-1.83	-2.17*	.94

* $p<.05$, ** $p<.01$, *** $p<.001$

학교에 따라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성적에 따라서는 부모양육태도($F=13.17, p<.001$), 우울($F=14.92, p<.001$), 자살생각($F=4.17, p<.05$), 학교생활적응($F=24.37,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잘함 이상'인 집단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과 자살생각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자살생각($t=-2.17, p<.05$)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부모양육태도	우울	자살생각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우울	-.32**			
자살생각	-.30**	.55**		
학교생활적응	.49**	-.42**	-.33**	
M(SD)	3.19 (.54)	.42 (.35)	1.46 (.76)	2.96 (.44)

** $p<.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우울($r=-.32, p<.01$), 자살생각($r=-.30,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r=.49, p<.01$)를 보였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r=.55,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학교생활적응($r=-.42,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자살생각은 학교생활적응($r=-.33, p<.01$)과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5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4.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beta = -.38, p < .001$)와 여자($\beta = -.27, p < .0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은 남자 14%, 여자 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단계 분석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남자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beta = .54, p < .001$)이 여자($\beta = .42, p < .001$)보다 높았으며 설명력은 남자, 여자 각각 29%,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성별	B	β	R ²	F
1단계 (종속-독립)	우울	부모양육태도	남	-.23	-.38***	.14	46.48***
			여	-.19	-.27***	.08	20.66***
2단계 (매개-독립)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남	.45	.54***	.29	116.45***
			여	.32	.42***	.17	54.23***
3단계 (종속-독립, 매개)	우울	부모양육태도	남	-.11	-.19*	.23	41.96***
			여	-.26	-.36***		
		학교생활적응	남	-.10	-.15*	.15	22.30***
			여	-.26	-.30***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을 추가하여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학교생활적응을 통제한 후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남자의 경우 $\beta = -.38(p < .001)$ 에서 $\beta = -.19(p < .05)$ 로, 여자의 경우 $\beta = -.27(p < .001)$ 에서 $\beta = -.15(p < .001)$ 로 낮아져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검증되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설명력은 남자 23%, 여자 15%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남자 $Z = 6.679(p < .001)$, 여자 $Z = 4.732(p < .001)$ 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2) 부모양육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beta = -.29, p < .001$)와 여자($\beta = -.35, p < .0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은 남자 8%, 여자 1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단계 분석 결과는 우울부분에서 검증한 것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을 추가하여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학교생활적응을 통제한 후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남자의 경우 $\beta = -.29(p < .001)$ 에서 $\beta = -.15(p < .05)$, 여자의 경우 $\beta = -.35(p < .001)$ 에서 $\beta = -.24(p < .001)$ 로 낮아져 남자, 여자 모두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학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 3단계에서 변수들의 설명력은 남자 13%, 여자 17%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남자 $Z=5.213$ ($p<.001$), 여자 $Z=4.666$ ($p<.001$)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

표 11. 부모양육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성별	B	β	R ²	F	
1단계 (중속-독립)	자살생각	부모양육태도	남	-.33	-.29***	.08	25.28***	
			여	-.60	-.35***	.12	35.40***	
2단계 (매개-독립)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남	.45	.54***	.29	116.45***	
			여	.32	.42***	.17	54.23***	
3단계 (중속-독립, 매개)	자살생각	부모양육태도	남	-.17	-.15*	.13	20.33***	
			학교생활적응	남	-.34			-.25***
		부모양육태도	여	-.42	-.24***	.17		26.70***
				학교생활적응	여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북의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의 수준을 점검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요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우체영(2009)[21]의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의 경우,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문제는 여자에게서 더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22] 비해 비행이나 일탈행동 같은 행위문제는 남자가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23]. 이는 여자의 민감성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에 기반하며, 사회로부터 높은 성관련 기대를 받으며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훈육 및 사회화가 심리행동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24].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우울과 자살생각의 수준이 낮았고 학교생활적응수준은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적이므로,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성적에 대한 압력을 덜 받아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더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또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나 학교규칙준수 등의 학교생활적응 또한 더 원활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관련 문제도 덜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송연주 등(2014)[25]과 성적이 좋을수록 자살생각수준이 낮다는 이규현 등(2014), 강옥봉(2015)[26][27]과 같은 결과이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수준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더 낮다는 정철순 등(2001), 이해원(2005)[29][88]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가 순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현장은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세분화된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아동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담교사 1-2인을 활용한 학생 관리는 우울경험률과 자살생각률에 비추어볼 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용효과면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는 소외될 수 있으나 인적자본의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 및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개별적인 개입을 위해

서는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남녀청소년 모두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비록 설명력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정적 자녀양육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불안을 가져오고[20],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은 자살생각을 낮춘다는 강옥봉(2015), 임경희(2015) [6][27]의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이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기가 또래집단과의 상호관계가 많아져서 부모의 영향력이 아동기에 비해 줄어드는 시기라 할지라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긍정적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의 박탈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불안정한 자아 및 정신건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지점을 부모에게서 찾아야한다. 청소년은 가장 밀접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제외한 우울과 자살예방 노력은 청소년에게 변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예방에 관련된 실천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간혹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울과 자살생각관련 프로그램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실천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천으로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의 회복은 우울과 자살생각 감소뿐 아니라 학업중단, 가출, 비행 등의 또 다른 청소년 문제의 사전적 예방이 되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학교환경에 의해

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학교생활적응이 투입됨으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남녀 모두 공통적이다. 즉, 학교친구, 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성취를 경험한다면 우울과 자살생각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개인의 내적 역량과 대인관계를 확장해 가는 공간으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키워갈 때 우울과 자살생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센터, 위클래스 및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실행,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그동안 학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사회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대상 지역인 충북의 경우 전국 교육청 최초로 우울증 예방에 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31]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 우울 및 자살예방의 직접적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분명한 가운데, 학부모와 학교(교사, 교육체계의 점검 등) 또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체계의 변화 없이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완회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청소년, 그리고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학교생활적응이 우울과 자살생각 모두에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1] 이용택, 이은경,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2호, pp.55-70, 2012.
- [2] M. Marius, “Psycho-behavioral consequences of parenting variables in adolescents. Procedia -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87, pp.295-300, 2015.
- [3] 소선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 B. F. Piko and M. A. Balazs, “Control or involvement?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European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21, pp.149-155, 2012.
- [5] 고두훈,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임경희,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7] 김애경,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Vol.16, No.3, pp.31-50, 2002.
- [8] 김성일, 정용철,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Vol.12, No.1, pp.5-27, 2001.
- [9] 강승희,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8권, 제3호, pp.1-29, 2010.
- [10] A. Kullik and F. Petermann,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s a risk factor for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4, No.4, pp.537-548, 2013.
- [11] 김중운, 김지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041-1054, 2014.
- [12] 기성진,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 컴퓨터 정보사회*, 제17권, 제5호, pp.127-136, 2012.
- [13] A. P. Jackson, J. K. Choi, and P. M. Bentler,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0, pp.1399-1455, 2009.
- [14] 우선유,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5] L. Wichstrom,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9, No.5, pp.603-610, 2000.
- [16] 박정현, 이미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45-63, 2014.
- [17] 임숙빈, 정철순,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2권, 제2호, pp.254-264, 2002.
- [18] 류희정,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9] 이아영, *부모의 지지와 통제 및 학교생활적응에 남녀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0]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4호, pp.1-27, 2014.
- [21] 우채영, *청소년의 부정적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2] M. Ma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64, No.2, pp.237-243, 1996.

- [23] K. Lyons-Ruth, "Attachment relationship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4, pp.64-73, 1996.
- [24] 우체영, 박아청, 김관희, "성별 및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pp.19-38, 2010.
- [25] 송연주, 이상수, 김대현, 함경애, 이동훈, "학업성취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제12권, 제1호, pp.29-50, 2014.
- [26] 이규현, 권윤희,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820-828, 2014.
- [27] 강옥봉,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8]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 "청소년의 자살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pp.521-532, 2001.
- [29] 이혜원,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W. W. Hale, I. Van Der Valk, R. Engels, and W. Meeus, "Does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make adolescents sad and mad?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with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6, No.6, pp.466-474, 2005.
- [31] 뉴시스, 충북교육청, 청소년 우울증 예방 동영상 제작, 2012.2.17.

저 자 소 개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1년 8월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015년 7월 ~ 현재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 택 희(Taek-Hee Cho)

정회원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교육, 국제경제